무등경기장 건너편 노후 주택가

‘동네 마당’ 만든다

광주 최초로 ‘동네마당’이 조성되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성경로당 일대 주택가. 〈광주시 제공〉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

쌈지공원·체육시설·커뮤니티 공간 건립

노후한 도심 주택가에 이웃간 공동체 문화의 싹을 틔우는 ‘동네마당’이 조성된다.

쌈지공원·체육시설·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된 ‘동네마당’이 들어서는 장소는 광주 북구 운암동 무등경기장 건너편 광성경로당 일대 주택가. 이 곳은 30여년 전에 조성된 단독주택 밀집지이다. 그러나 6천여명 주민들이 서로 공동체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공간은 전혀 없었다. 또 인근을 지나는 기차 소음으로 인해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광주시는 11일 이 일대가 행정안전부의 ‘동네마당 조성사업’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0억원(국비 5억, 시비 2억, 구비 3억). 앞으로 이곳에는 쌈지공원과 체육시설,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지난 9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생활공감 정책 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대 서민 정책 핵심과제 중 하나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4년동안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144곳에 10억원씩을 투입해 동네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운암동 동네마당은 행안부가 이번에 공모한 첫번째 케이스로 선정된 것이다. 광주지역에서는 동네마당 1호인 셈이다.

행안부 연구용역팀은 12일 오전 10시 북구 운암 2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의 개념과 취지, 향후계획, 시범사업 모델제시 등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동네마당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진행된다. 북구청은 12일 설명회 자리에서 지방의원, 교수, 공무원, 지역민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이웃간 공동체· 여가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주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제 엄마·아빠가 지켜줄께”

“길을 잃은 아기천사들에게 가족의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지난 11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들과 인연을 맺었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잡아준 주인공은 GS칼텍스 광주지사 직원들로 구성된 ‘빛고을 사회봉사단(단장 방열중)’ 단원들. 크리스마스 깜짝파티 등 4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봉사단원들은 아이들과 좀더 가까워지기 위해 최근 가족결연을 제안했다.

GS칼텍스 광주지사 ‘빛고을 사회 봉사단’

4년 후원 일시보호소 영아들과 가족 결연

이날 가족결연을 한 아이들은 모두 17명으로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맡겨졌거나 버려진 1살부터 4살까지의 아이들이다. 남자 봉사단원은 아빠가 돼주고, 여자 봉사단원은 엄마가 돼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비교적 젊은 봉사단원들은 부모보다는 삼촌과 이모를 선택하기도 했다.

새로운 가족 품에 다정하게 안겨 함박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은 마치 진짜 엄마·아빠를 만난 듯 밝게 웃었다. 봉사활동에 처음부터 참여한 김은희(여·25)씨는 이곳에서 하늘(여·2)이와 인연을 맺었다.

하늘이를 가슴에 품은 김씨는 “오늘 맺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 하늘이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11일 광주시 북구 북동 한 연회장에서 ‘GS칼텍스 광주 저유소 빛고을 봉사단’ 단원들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아이들과 가족결연을 맺은 뒤 돌잔치 케익을 자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봉사단과 아이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 ‘가족결연 서약서’를 나눠 갖고, 가족이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 가족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봉사단은 가족결연식과 더불어 2005년부터 이어오던 크리스마스 깜짝 파티를 이날로 앞당겨 치렀다. 매년 그래왔듯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소망나무’라고 이름짓고 아이들의 소망을 적어 트리에 걸었다.

최근 돌을 맞은 아이들은 새 가족들과 돌잔치도 함께했다. 지난해 12월에 태어난 경훈이, 예서(여)와 올해 1월에 태어난 대장이가 그 주인공.

대장이의 돌잡이 모습을 지켜보던 새 아빠 방열중(53) 봉사단장은 다훈증후군을 앓아 유달리 심장이 약한 대장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실’을 잡도록 안간힘을 썼다.

봉사단은 길잃은 아기천사들이 항상 오늘처럼 행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리라고 다짐하고, 아이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했다. /김형호기자 khh@

‘환경 서포터즈’의 힘 !

市보건환경硏 환경 컨설팅

영세사업장 오염물 배출 ‘0’

지역 영세사업장에 환경컨설팅을 제공하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 서포터즈’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광주시 6개 산단에 산재한 환경사업장 25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자문과 교육을 담당하는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환경서포터즈’가 운영되기 전인 지난 2006년 이들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건수가 무려 29건이었으나 지난 2007년 3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11월말 현재 단 한 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환경서포터즈’에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사업장 환경담당자들을 상대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 전반을 관리해왔었다. 특히 현장 전문컨설팅 활동을 통해 환경 마인드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탄소 저감 미래주거모형’ 심포지엄

전남대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

전남대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단장 송진규)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대한주택공사 광주지사에서 ‘탄소저감 미래주거모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광주광역시와 건축단체연합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정장’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의 ‘저탄소 시범도시’ 구축사업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임상훈 박사는 ‘저탄소, 저에너지 건축의 동향과 방향’을,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이현우 회장은 ‘저탄소, 저에너지 주거인증 발표’를, 전남대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는 ‘탄소저감 미래주거모형 및 친환경 단지계획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아주대 이규인 교수의 사회로 발표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전남대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은 지난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친환경 저탄소 시범마을(수완지구)의 구체적 설계모형 계획안 수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아일랜드産 돼지고기

긴급 회수대책반 편성

광주시 유통 여부 점검

광주시는 국내에 유통 중인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 수입육 판매업소 30여곳을 대상으로 유통 여부 점검에 나섰다.

시는 5개반 10명으로 시·구청 합동 회수대책반을 긴급 편성해 지난 9월 1일 이후 생산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와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 제품이 발견되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는 모두 355t이며 이 가운데 90t가량이 9월 1일 이후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